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한·중 미술 교류전 개막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원장 손완이)는 18일 중국 허베이미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전시관에서 '제7회 한·중 미술 교류전'을 개막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중국 허베이미술대학교 전종이 설립자 겸 총장과 장지연인 부총장, 한국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손완이 원장, 구만재 미술

학과장 등 한·중 양국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연의 미학'을 주제로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유화 작품과 서양화, 벽화 등 호남대 미술학과와 중국허베이미술대 소속 교수 및 석·박사 학생 50여 명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동구 아동양육시설에 지원금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 이경근)는 1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에 동구 아동양육시설 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기부했다.
 (사진)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오성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주) 본부장, 강춘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원장,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 최모세 영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일백원, 영신원, 무등육아원, 광주성빈여자 등 5개 기관의 지원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오성만 본부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과학기술원 오늘 최경환 교수 초청 과학스쿨



미래 자동차의 모습과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보는 강연이 광주에서 열린다.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하 과학관)과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지스트)은 20일 오후 7시 과학관 상상홀에서 12월 과학스쿨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최경환(사진) 지스트 기계공학부 조교수가 '미래자동차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미래 자동차의 모습과 작동원리, 인공지능 활용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 조교수는 기계공학부에서 조교수 및 AI대학원 겸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커넥티드 자율전기자차와 차량용 전기모터, 인공지능 활용 제어 등을 연구하고 있다.
 한편 과학관과 지스트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저녁 '과학스쿨'을 열고 있다. 과학스쿨은 온라인 사전예약 후 현장 입장이 가능하며 어린이부터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강연 영상은 과학관 사이버과학관에서도 다시 볼 수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K-water 전남지역협력단, 영광군에 보은용품 전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단장 김지원)은 지난 18일 영광군에 300만원 상당의 보은·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은 K-water 전남지역협력단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와 매칭그랜트 재원으로 진행됐다.
 김지원 전남지역협력단 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이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로 진행됐다. 김지원 전남지역협력단 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취약계층 이웃들이 지역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께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목포예치과 김성훈 원장, 목포 청소년 10명에 장학금



목포예치과의원 김성훈 원장이 최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를 통해 목포시 관내 청소년 10명에게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김성훈 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어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인제대로 성장하는 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장은 전남13호 아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조선대 김진규 무역학과 교수 동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수상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김진규(사진) 무역학과 교수가 최근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제71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학회지에 발표한 'HS 협약 개정에 따른 무인 항공 이동체의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논문은 4차 산업 시대의 무인 항공 이동체에 관한 HS 협약 국제상품분류 체계 및 국제항공 규범을 국내 품목분류 체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다뤘다.
 한편 지난 1988년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정책 분야 우수 학술 단체다. 매년 항공우주 정책 분야 우수 논문을 발굴해 우리나라 학문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우수 논문상을 시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세 번째 결혼(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제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0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국회 인사청문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0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1	30 영상앨범 산(재)	00 혼례대첩(재)		
12	00 KBS 뉴스 12	15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00 12 MBC 뉴스 25 뽀뽀 좋아 좋아 55 꾸러기 식사교섭(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휴먼다큐 마냥 이쁜 우리말
1	00 KBS네트워크특선 지명수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주니토니아가기 40 다이노맨2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팔도방송 스페셜(재) 30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5 시간여행자 투크(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 스페셜 30 영상앨범 산(재)	55 5 MBC 뉴스	00 7학년 주식회사(재) 40 도시락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특별기획 4부작 7년 전쟁과 전라도사람들	50 우아한 제국	05 세 번째 결혼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45 살림하는 남자들	00 오늘도 사랑스럽게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KBS 뉴스라인W		15 열녀박씨 계약결혼연 스페셜 30 라디오스타	40 유니버시티
11	30 이수 픽 쌤과 함께 스페셜	00 고려 거란 전쟁(재)		
12	00 시사기획 창(재) 50 사랑의 가족(재)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개는 훌륭하다(재)	10 열녀박씨 계약결혼연(재)	2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재)	17:25 허풍선이 미술쇼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10 다이노스터(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40 EBS 뉴스
07:00 허풍선이 미술쇼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시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20 고향민국
17:30 얼마 까투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50 귀하신 물체(재)
07:45 레인보우 버블럼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명 유치원	15:15 강신주의 장자 수업	《불수록 불리비아-치명적 여정, 유유니》
08:20 웃기는 처음 영어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5 한국기행
08:5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국수 로드 3부 기자 타고 국수 여행》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21:55 왔다! 내 손주
09:20 인간이 되자(재)	17:00 페퍼 피그	22:45 교육대기획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다
10:00 안전채널e	17:10 마사와 곰	-클래스 UP! 교실을 깨워라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쇼츠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0일(음 11월 8일 壬子) ☎ 010-9790-8237

<p>子</p> <p>36년생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면서 진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48년생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60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단이 될 것이다. 72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84년생 예견되는 위험을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6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1, 75</p>	<p>午</p> <p>42년생 갑모습에 현혹된다면 상당한 낭비를 부를 것이다. 54년생 책무를 다하고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다. 66년생 백 마디의 말보다 한 번 보여 주는 것이 낫다. 78년생 구체화되면서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되나, 90년생 잊비웃하여 낮고 못함을 정하기가 어렵다. 02년생 의외의 길사가 보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행운의 숫자 : 45, 64</p>
<p>丑</p> <p>37년생 큰 거둠을 잡고 대범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다. 49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61년생 과감하게 전환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73년생 불평을 감수하고 있노라면 길사가 펼쳐지리라. 85년생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면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97년생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81</p>	<p>未</p> <p>43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55년생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성과를 거둔다. 67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전혀 신경을 필요 없다. 79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화되었던 바이다. 91년생 우발적이라면 중요한 시기에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다. 03년생 판국을 좌우할 만한 흔들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9, 71</p>
<p>寅</p> <p>38년생 농담이 진담으로 될 수도 있다. 50년생 뻔하고 있으면서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62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이니 틀림없다. 74년생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주위 담도록 하자. 86년생 희망의 빛이 점점 가까이 비추어는 형국이다. 98년생 타당성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1, 62</p>	<p>申</p> <p>44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탁 트이어나르다. 56년생 기준에 입각하여 확실하게 입한다면 성취하리라. 68년생 위기를 기회로 급변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80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외의 것이 태반이어서 혼란스럽고 무의미하다. 92년생 상대의 은덕으로 인해 감동해졌다. 04년생 고민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라. 행운의 숫자 : 28, 95</p>
<p>卯</p> <p>39년생 가장 판국에서 진짜가 파묻히는 애석함이 보인다. 51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63년생 한번의 실수가 곧 큰 답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75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87년생 예상해 있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99년생 투명해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03, 59</p>	<p>酉</p> <p>45년생 제대로 실행한다면 실속 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될 것이다. 57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니 쉬운 때이다. 69년생 본질과 속성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함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아니한다. 81년생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93년생 현실적으로 대처해야겠다. 05년생 맹목적이거나 무리함이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57</p>
<p>辰</p> <p>40년생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계제이리라. 52년생 간접적인 조처는 급격히 피하는 것이 합당하다. 64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잡는 기회가 있다. 76년생 절도 중요하지만 대량이 필요한 시기이다. 88년생 분수를 지키면 충사를 비켜갈 수 있다. 00년생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의증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12, 61</p>	<p>戌</p> <p>34년생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목적하는 바와 거리가 생길 수 있느니라. 46년생 여태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서서히 불거지고 있느니라. 58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 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70년생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82년생 내실 있게 진행되리라. 94년생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다. 행운의 숫자 : 06, 96</p>
<p>巳</p> <p>41년생 여러 사람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난처해지리라. 53년생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65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77년생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9년생 새로운 위상을 여는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다. 01년생 인식했다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0, 55</p>	<p>亥</p> <p>35년생 초기에 사려 깊은 공을 들여야만 한다. 47년생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59년생 헛대도 통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71년생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83년생 길흉이 교차하면서 부침이 심할 수도 있다. 95년생 만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행운의 숫자 : 24, 52</p>